

‘국가 NPU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로 AI 생태계 완성

서울서 ‘AI반도체 혁신전략협의회’…지역기업 등 참여 실증·확산 거점구축 논의…AI 생태계 발전 방안 공유

광주시가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과 함께 국가 NPU 컴퓨팅센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시는 2일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위한 AI반도체 혁신전략협의회’를 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NPU) 실증·확산을 위한 국가 거점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진욱·안도길 국회의원, 에이직랜드·퓨리오사·AI·리벨리온·하이퍼엑셀 등 국내 NPU 산업을 대표하는 12개 기업이 참석해 광주의 경쟁력과 향후 생태계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AI 실증도시 광주’ 전략의 핵

심 사업으로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NPU 컴퓨팅센터는 대규모 AI 추론·학습에 특화된 인프라로, 저전력·고효율 기반의 차세대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NPU(신경망처리장치)는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대규모 학습에 강점을 지닌 GPU와 달리 실제 서비스 단계의 추론에 최적화돼 전력 효율성이 높다. AI 서비스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NPU 수요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NPU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광주가 축적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위한 AI반도체 혁신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인공지능반도체(NPU) 실증·확산을 위한 거점 구축 방향을 논의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온 AI 기반시설과 실증 역량을 국가 NPU 센터 운영과 연계해 국산 NPU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2023년부터 2년간 200억 원 규

모의 NPU 실증·검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산 NPU 기반 AI 전환 촉진·상용화에 4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국산 NPU 실증환경 부족 △대규모 검증시설 미비 △소프트웨어·장비 접근성 제약 △공공형 NPU 컴퓨팅 기반 부재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공공수요 부족 등 국내 NPU 산업 개선점과 거점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는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전략과 광주 육성 방안” 기조발표 통해 “인공지능 시장 변화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NPU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서비스기업의 실증·개선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며 “풍부한 전력과 인재,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가 있는 광주야말로 추론 시대에서 소버린AI를 실현할 최적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는 “기업은 시장 반응이 좋은 만큼 글로벌로 가기 위한 NPU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광주는 기업의 실증현장이 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는 “기술을 테스트할 환경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광주에 NPU컴퓨팅센터가 구축되면 국산 칩을 대규모로 실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이를 통해 칩과 인공지능 모델 제작, 실증과 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해결하는 ‘소버린 AI’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NPU컴퓨팅센터와 규제프리도시를 통해 국산 NPU 실증·검증 혁신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산 AI반도체 상용화 이르게 될 것”이라며 “AI생태계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은, 인구 변화 대응 세미나 1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오는 15일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전략 및 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주제발표(1부)와 정책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의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현황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 문연희 광주연구원 센터장의 ‘광주지역 청년 실태와 일자리 정책 방안’, 최지혜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전남지역 노동력 고령화 대응방향’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은 박관진 한국은행 본부장의 사회로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 김영선 전남연구원 원장, 이철희 서울대 교수, 유정아 광주시 인구정책담당관,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인터넷진흥원, AI 해킹방어 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팀 ‘종합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해킹방어대회 ‘2025 인공지능 해킹방어 대회(ACDC)’ 본선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 해킹방어대회는 AI 보안 관련 3대 핵심 영역인 인공지능 활용 보안(AI for Security),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Security for AI), 인공지능 플랫폼 보안(AI Platform Security)을 다룬다. 대회 예선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예선을 통과한 20개팀(4인 1조, 총 80명)이 12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본선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대회 종합우승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팀’(상굴래터리, 슈퍼블록, 비바리퍼블리카, 토스증권 연합팀)이 차지해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일반부문 우승에는 ‘GYG’팀(토스 티오리 연합팀), 학생부문 우승은 ‘Pwngrad’팀(KAIST, 숭실대학교 연합팀)이 선정돼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으로는 LG유플러스 대표이사상에 ‘78RL78’팀(78ResearchLab)과 ‘유캔도틀아시나요’팀(연세대학교), 한국정보보호학회장상에 ‘RHCP’팀(포항공과대학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성과 공유

점포철거비 서류 간소화…취업연계 확대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상암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지역 갈나무 재배 농가와 협력해 곱감 단백비를 개발한 ‘리얼로푸드&바디랩’ 김난형 대표와 인쇄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매출을 250% 이상 끌어올린 워터클레이 기업 ‘시도’의 이용욱 대표, 폐업 후 호텔 파티시에로 취업한 소상공인 등

우수 성과자 7명에게 중기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해 합촌 기관 유공자 6명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수성과 공유했을 뿐 아니라 재기사업화 우수상품 전시와 선후배 소상공인 네트워킹, 중소기업 채용상담 부스 운영, 취업특강, 상품기획자(MD) 상담회 등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 4만 8583건,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성공을

위한 취업 심화교육 8358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지급 2만5563건 등이 추진됐다. 또 재기사업화 지원 전 재기진단 6747건과 재기사업화 전담PM 지원 2820건도 이뤄졌다.

중기부는 내년에는 점포철거비 지원 서류를 기존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재기사업화자금 자부담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폐업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14일까지 ‘홀리데이 기프트 뷰티페어’

샘플링 쿠폰 증정·메이크업 컨설팅 등 다채

(주)광주신세계가 연말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홀리데이 기프트 뷰티페어’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4일까지 크리스마스, 람프, 비오템 등 4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화장품 샘플링 쿠폰, 할인권 증정과 함께 메이크업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코스메틱 샘플링 쿠폰은 14일까지 ‘신세계’ 앱을 통해 ID당 1개의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샘플 증정 장소는 해당 브랜드 매장이다.

우선 크리스드는 향수 샘플(1.7ml) 1종을 증정한다. 람프에서는 이드라렌 수딩크림

(1ml)+클라리피크 에멀전(1ml), UV아쿠아젤(1ml)을, 헤라에서는 컴퍼 컨디셔닝 에센스(15ml)를 증정한다.

조 말론 런던, 답티크, 에스티 로더, 키엘 등 일부 브랜드는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을 제공한다.

스킨-헤어케어, 메이크업, 핸드 마사지 등 나를 위한 케어가 가능한 방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엘, 라 메르, 비오템 등은 피부 진단 서비스를, 맥, 바비 브라운, 톰 포드 뷰티는 포인트 메이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송대웅 기자 sty1235@gwangnam.co.kr



LPG·LNG 할당관세 연장…설량 물량 20%↑

美관세 대응·신산업 지원 차원 할당관세 품목 확대

정부가 내년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물성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

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물गत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과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축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시즌 왔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5일까지 1층 팝업매장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연말 분위기를 가득 채워줄 오르골을 비롯해 오너먼트, 인형, 마그넷, 카팅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머플러, 장갑, 양말, 침옷까지 다양한 연말의류, 집화 상품도 마련됐다.

농어촌공사, 농촌 매력 전 세계에 알려

글로벌 서포터즈, 2100여건 게시물 SNS 등록

한국농어촌공사는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와 7개월간 전 세계에 한국 농촌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렸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2025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해단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해단식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19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상위 4명에게 최우수상(1명)과 우수상(3명)이 각각 수여됐다.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있었다. 지난 5월 14개국 20명의 인플루언서(총 팔로워 92만명)로 출범한 서포터즈는 전국 농촌 여행지 9곳을 다녔다.

서포터즈는 활동기간에 공사가 준비한 9회의 농촌여행과 더불어 ‘의성 농촌크리에이티브’ 등 관계기관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농촌여행 후기 게시물은 2148건에 달

하며, 국내외에서 약 330만회 이상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경험하는 농촌 체험이 세계 팬의 큰 반응을 얻었다.

경기 가평 ‘자향기 푸른마을’에서의 ‘엠티(MT) 문화 체험’(상호작용 76만회), 강원 양양 ‘38 평화마을’에서의 ‘여름 서핑 체험’(상호작용 75만회)은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소개하며 높은 공감을 끌어들였다.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있었다.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기념해 호주 출신 인플루언서 ‘챔보(Chambo)’와 제작한 ‘5만원 드리면’ 시리즈는 조회 수 82만6000회를 기록했다.

경주 세심마을에서의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과 한우 소 갈비찜 먹방을 담은 이 영상은 농촌 미식 관광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주=조원천 기자



농어촌공사는 최근 ‘2025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해단식을 가졌다.